

포천사회 知識人 ③⑤

경북대학 배희호 교수

지역정보화축제 개최로 정보화 인프라 구축해야 연구과제 3D웹 콘텐츠제작으로 평면에서 입체로 발전

“지역사회 웹사이트는 물론 인터넷 환경, PC보안 및 수리 등 정보화 관련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와의 연결이 되지 않고 있다. 특히 기업의 회계분야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와 같은 아이টে임을 머리를 맞대고 함께 이야기할 기회가 없다.”

삼성전자에서 실무경험을 통해 IT업계의 시장현황과 흐름을 잘 알고 있는 경북대학 컴퓨터응용과 배희호(45·사진)교수의 말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급여관리업무, 연말정산 업무도 학교에 일정한 장학금만 기부한다면 얼마든지 관리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고 한다. 업체에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학교에서는 시스템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좋은 것이다.



“항상 처음처럼 살자”를 좌우명으로 삼아 노력하고 있는 배 교수는 사람이 처음에는 결손하지만 조금 지나면 자기주장이 강해지고 참지 않으며 힘을 발휘하려고 한다. 초심으로 살아가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경북대학에 부임한 학생들을 강하게 교육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충분히 공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방법을 제시하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지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점수를 주지 않아 50%이상이 F학점을 받을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한국정보과학회, 전산교육연구회, 전문대학 전산소장 협의회, 조달청 행사시스템 도입 평가위원, 상공회의소 컴퓨터활용능력 출제위원으로 활동중인 배 교수는 앞으로 3D웹 콘텐츠제작 연구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홈페이지 활용을 위한 웹호스팅도 할 수 있다. 각 회사마다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포천시와 학교 및 업체가 함께 모여서 이와 같은 문제를 토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예를 들면 학교 정문 근처에서 하숙하는 학생들의 방에서 인터넷을 제대로 이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 학생들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 시스템을 이용해 무선으로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학생들은 무선이든 사용하든 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같은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한다. 이 비용은 공공목적이기 때문에 포천시가 부담해야 된다는 점이다.

배 교수는 의정부시에서 개최하는 정보화 축제에 처음부터 참여했다. 그러나 의정부시 정보화를 추진하다 보니 포천시와는 거리가 있어 3회까지 참여하고 그만두게 되었다. 포천시에서도 정보화축제를 개최하여 인터넷 환경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포천시의 문제점은 자연만 이야기 한다. 첨단이야기가 나와야 한다. IT산업도 개발해 나가야 한다. 정부의 연구사업도 대개 경기도 남부에 치중되어 있다. 경북북부사업은 거의 없다.

원주시의 경우 연세대학교 분교가 있으며 의료기발달센터로 집중 개발되고 있다. 원주시에 의료기기업체가 입주하게 되면 세계최대품은 물론 공장부지도 제공되고 있다.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게 된다. 파주도 마찬가지다. 대학도 들어가고 있다.

배 교수는 경북 예천에서 태어나 재천의립초, 대재중, 청주 총북고, 인하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대학원을 나와 대영전자주식회사에 병역특례로 입사했다. 이곳에서 광통신장비 제작후 2년만에 삼성전자로 옮겨 광통신장비를 제작해 88올림픽과 93대전엑스포 등에 전시하기도 했다. 1992년 미국에 연구하러 나갔다가 LA쪽동으로 국내에 들어와 1993년 경북대학에 부임했다.

배 교수는 최근 반경 30m내의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차단기를 개발했으며 국내에서는 법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수출상품으로 개발해야 한다.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교도소에서도 핸드폰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 따라서 멕시코 당국에서는 이와같은 제품을 활용하여 전파를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배 교수는 또 천안-논산간 민자고속도로 틀게이트 포나오는 곳을 화물차가 치고 가서 작동이 안될 경우 알려주는 시스템을 개발해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경북대학 정보지원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배 교수는 학교시스템관리는 물론 학생생활업무지원등에 나서고 있다. 전공관련 분야에서는 순수 소프트웨어개발사업 자문, 펌웨어 개발사업 등에서 연구하고 있다.

경북대학이 포천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것은 인터넷 활동 강의와 PC수리 등에서 가능하다. 특히 원격으로 컴퓨터를 관리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다. 특히 아파트관리소 등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관련 교육, 인터넷 관련 강의를 가능하다고 밝혔다.

방위산업체에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해준 사회에 봉사하기 위해 배 교수는 1년에 한 가지씩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 포천지역사회를 위해서도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포천시나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대화가 요구되고 있다.

다음은 배 교수의 주요저서 및 논문이다.

□저서▶Turbo C 언어(1996, 형설출판사)▶C 언어 프로그래밍(1997,형설출판사)▶경영자료처리를 위한 Visual Basic(1998,홍진출판사)▶홈페이지 작성(2000,행정자치부)▶C 언어 실전하기(2002,21세기사)▶리눅스의 이해와 활용(2002,SUSE KOREA)▶PHP 4.x 데이터베이스 웹 프로그래밍(2002,21세기사)▶LINUX 시스템 이해와 구축(2003,도서출판 바울)▶논문▶프레임에서 예외처리에 관한 연구(인하대학교 대학원 논문, 1987)▶LPC VOCODER 개발 연구(디지털 정보통신연구소 논문집, 1987)▶과파장 광통신시스템 개발(한국전자통신연구소 논문집, 1988)▶교육용 모터제어시스템 구형 연구(경북논총, 1998)▶유전자알고리즘과 신경망을 이용한 데이터 마이닝 기법의 최적화 탐색 이론에 관한 연구(한국산업 정보보안 학회 논문지, 2002)▶Web mining을 이용한 개인화(person-alization) 시스템 설계에 관한 연구(경북논총, 2002)▶LINUX 시스템의 Network Monitoring Tool(NMT)개발(경북논총, 2003)▶인증서버의 집중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증서버 분산배치(한국정보과학회논문지: 기술교육, 2006)▶광전송 장치의 절체 제어 방법(특허청, 1991)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무선인터넷 환경 구축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지원해야

“시정설명회 주민순화 교육장인가”

박윤국 시장, 정부 지역정치인 시민 강력 비판 이강림 의장, 결과물 없으니까 책임전가 주장



하승완 본지 취재국장

박윤국 포천시장은 그동안 포천시가 발전하지 못한 것은 정부 정책이 잘못되었고 기존 포천을 대표한 사람들이 무관심했기 때문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박 시장은 시민들을 향해서는 포천동 혹은 영북면, 이동면 출신이라는 소지역주의와 타지역 출신에 대한 시민들의 배타적인 의식을 이제는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포천시지 지하철유치나 민자고속도로 건설, 대학유치사업 등 대형프로젝트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데, 여기에 관해 지하철이 들어오지 않는다는거나 혹은 되는 일이 뭐가 있느냐고 비아냥 거리는 것은 해보지도 않고 마치 추진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지난 1월24일부터 2월6일까지 관내 14개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2007년 시정설명회를 가진 바 있다. 이번 시정설명회는 예년과 달리 포천시 공무원 20여명을 동행시켜 市의 일방현황 및 재정현황, 공교육과 인재육성 관련사업, 문화예술 인프라구축 관련사업 및 관광개발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저소득층 주민 등 복지관련사업, 하천 등 환경관련사업, 균형발전사업, 포천시의 정비발전지구 포함여부 등이 담겨져 있는 동영상을 15분간 상영하고 기획감사담당관이 15분간 주민들에게 시정 설명을 했다. 같은 시각 읍면동장은 시장과 수렴한 성과 및 지역유지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읍면동별 주요 현안사항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후 시장일행이 시정설명회장에 입장에 참석할 주요 내빈을 소개하고 퇴임한 이장에 대한 공로패 전달, 시장 인사말, 주민질문 순으로 진행됐다. 시정설명회는 동영상 상영과 기획감사 담당관이 시정에 관해 15분 정도 설명하고, 나머지 시간은 박윤국 포천시장의 인사말로 대부분 할애됐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시장을 설명하거나 협조를 부탁하는 차원을 넘어 시민과 정부, 그리고 기존 정치인들 때문에 지역이 발전하지 못했다는 점을 크게 강조했다. 이러한 시장의 발언은 포천시가 발전하지 못했던 원인을 부각시키려한 의도가 아니겠느냐는 게 설명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말이다. 박윤국 시장은 인사말을 할때마다 여러분(시민)이 낸 세금은 市 전체예산의 32%에 불과하다. 써야할 돈은 10,000%이상이기 때문에 시민세금으로 시민에게 돌려줘야 할 생각조차 못한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정부가 83년 이후 성장관리권역으로 23년 동안 묶여나 지역발전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왔지만, 이제 포천시와 연천군이 정비발전지구로 포함되는 법 개정이 올해 이루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가 반성해야 할 일은 되지 않는 일을 왜 하느냐, 되는 일이 뭐 있느냐고 하는 비아냥 거리는 사람이 있다”면서 “포천시와 관련된 이직, 저직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않고 있는 것 보다 낫다. 일을 추진하다 보면 되는 것도 있고, 안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그는 “철도사업은 시장이 하는 일이나, 국가가 하는 일이지, 계속 비판만 한다던 시장은 그냥 일기만 채우고 불려나도 되겠느냐”면서 “한번 판단을 잘못해 70년전에 해야 할 일을 지금하고 있다. 전철이 만들어 온다고 비아냥 거리는데, 그 사람들은

전철이 들어오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 같다”고 말했다.

정부에 대해서 박 시장은 “정부는 포천시를 중국 땅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북한 개성은 각종 지원과 혜택을 주고 있는데, 유독 포천시에 대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규제하고, 그것도 부족해 공급물량으로 규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월6일 포천동 시정설명회에서 박 시장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손님을 잘 모셔야 하는데 장사하는 사람들이 화장실조차 개방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공무원과 시민이 불친절하면 누가 포천에 투자하겠느냐”고 역설했다.

포천동 시정 설명회에 참석한 이강림 포천시의회 의장은 “올 예산 3천200억중에서 포천동에 전체 예산의 1/3의 금액에 해당하는 860억원을 쏟아부었다고 설명했는데, 이 말은 맞지 않는다”면서 “실제로 포천동에는 이보다 훨씬 적은 금액의 예산이 배정됐다”고 지적했다. 또 이강림 시장의장은 “어려구유간 도로개설 380억(계속사업)과 포천천 자연형 하천 정비사업 162억8천만원(계속사업) 2개 사업은 포천동과 군내면 주요사업에 동시에 포함되어 있고, 포천천 분수대 설치사업은 예산심의 당시 삭감된 사업”이라고 말하고 “연차적 투자사업이라는 설명없이 사업비를 정액 포함시켜 마치 포천동에 868억 쏟아부었다고 말한 것은 허구화된 수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시정설명회는 사업계획을 설명하는 취지로 마련되어야 하는데 주민들을 순회교육 시키는 듯 해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바람직 하지 못했다”면서 “입기 동안 개인차량을 30만km를 운행했다는 것은 업무시간에 관용차량을 이용한 점을 감안하면 논리에 안맞는다”고 반박했다. 또 이 의장은 “정부정책을 비판하면서 자신이 잡지는 포천이라는 도시를 깨우고 기반시설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나타난 결과물이 없으니까 정부정책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라며 “(박 시장이) 한 일은 쓰레기처리장은 인조하천만 크게 인조할 것도 없다”고 단정했다. “신도시를 유치한 것을 가지고 잡지는 도시를 깨웠다고 하면서 그동안 (지역)정치인을 비판하는 것은 아전인수격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버스터미널 문제도 의회책임이라고 하는데 이 점은 행정의 연속성을 무시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면 의회가 하자는대로 할 것인지 묻고싶다”고 반문했다.

시민들의 배타의식이라고 말한 점에 대해 이 의장은 “일부 정치인들의 행태를 가지고 전체 시민이 그런 것으로 물고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면서 “시민들이 배타적 의식이 강했다면 운전 사람이 시장을 할 수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시정설명회를 가지면서 주민들에게 배포한 주요 사업의 읍면별 예산현황은 다음과 같다.

▶소홀음 총43건 834억3천800만원 ▶군내면 총39건 573억3천100만원 ▶내촌면 총34건 83억6천100만원 ▶가산면 총41건 255억900만원 ▶신북면 총39건 606억45천만원 ▶창수면 총27건 55억9천300만원 ▶영중면 총30건 29억5천400만원 ▶일동면 총42건 349억1천800만원 ▶이동면 총30건 278억3천100만원 ▶영북면 총37건 604억600만원 ▶관인면 총37건 77억8천900만원 ▶화현면 총25건 217억2천100만원 ▶포천동 868억7천200만원 ▶선단동 총37건 1천352억3천900만원 등이다. 이 금액은 계속사업별 총 금액이며, 2007년도 포천시 예산총액은 3천200억여원이다.

꽃배달 서비스

성하플라워

전국·해외꽃배달서비스 080-543-1889

이동교리281-14
부인타사거리에서
송우리쪽
130m
우측대로변
풍산그라비아옆

011-758-9088

http://www.sunhaflower.co.kr

자향

www.wellbeingcha.com
031-543-1883

www.wellbeingcha.com

031-543-1883
011-9750-1883

011-9750-1883

☘ 운남보이차 전문
천연무공해식품
무방한다예중
완전식품 도소매
“자향다회” 회원우대
연중무휴시음및
다도시연회

☘ http://www.wellbeingcha.com